

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나 유 신*, 채 금 석

배화여자대학 겸임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일본 디자이너인 Comme des Garçons의 Rei Kawakubo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1980년대 이후 패션의 흐름에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과 동양 미학의 영향, 그리고 그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Rei Kawakubo는 20세기 패션에 새로운 관념과 비전을 제시한 예술가로 인식된다. “post-Hiroshima look”이라는 이름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충격과 비교되었던 정도로 1980년대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미국에서는 “bag lady look”이라는 이름으로 거지 여성의 복장과 비슷하다며 부정적인 비평을 받기도 하였던 Kawakubo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전위적인 예술로 평가되며 점차 동서양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어 현대 패션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Comme des Garçons 디자인의 색상과 소재, 실루엣은 다른 스타일의 패션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현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Kawakubo의 디자인에서 보이는 형태의 불명확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무경계성, 서양과 동양의 혼합, 중성색의 사용, 옷을 입는 방법의 자유성은 의복 디자인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데 있어서, 양면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가진 동양미학의 관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 무(無)에서의 시작

Kawakubo의 디자인 세계는 해가 바뀌면서 매우 다른 스타일을 제시해 왔다. 기본적인 관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색상과 소재, 실루엣은 많은 변화를 거쳐 변화해 왔다. “starting from zero”라는 그녀의 말과 같이, 매 시즌 새로운 구조의 디자인을 발표해온 것도 Kawakubo의 디자인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Kawakubo는 Comme des Garçons의 정해진 이미지란 없다고 말한다. 현재의 디자인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지만, 다음 시즌의 디자인이 예전의 디자인 컨셉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디자이너의 특색을 유지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는 패션 산업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한 자유로운 태도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념은 불변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서양철학과 비교하여, 변화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동양철학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미완의 미

1980년대 Comme des Garçons의 Tear Dress와 Lace collection은 완전하지 않은 미를 추구하는 Kawakubo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디자인 효과를 위해 Kawakubo는 기계의 나사를 풀어 의도적으로 잘못 제작된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끝처리 되지 않은 직물, 다림질되지 않은 솔기, 의도적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 입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옷 등으로 미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특성을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포함시켜 왔다. 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인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과 같은 전통적인 서구적 관념에서 벗어나 있다. 미완의 상태에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고는, 비움으로써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동양철학에서의 무위(無爲)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인간적인 미(humanistic beauty)

Kawakubo의 디자인은 인간적인 미(humanistic beauty)를 가지고 있다. 한때 여성운동의 한 표현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던 서구적 여성미의 부재가, 현재의 시대적 관념으로 보았을 때 남성에게 성적 대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착용자의 내면을 나타냄으로써 인간 본질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을 이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미를 평가하는 서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착용자가 느끼는 내면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동양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와 추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추라고 여겨졌던 소외된 계층 사람들의 스타일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특징을 찾아내어 하이패션화 할 수 있었다. 또한 Kawakubo는 특정한 체형을 영두에 두지 않고 디자인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인은 체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인간 육체의 외형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간 내면의 표현에 자유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Rei Kawakubo는 동양미학의 연구를 통하여 이를 패션 디자인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철학적 표현은 동양의 전통 복식에서 보이는 특성과도 유사하여, 세계인들로 하여금 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인에서 일본의 문화적 특질을 느낄 수 있고,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세계인들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